

전주솔내청소년센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전주시, 23년 된 센터 리모델링·11월 준공... 청소년 시설 노후화 개선·주변 환경 정비 '최선'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솔내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하게 바뀐다.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솔내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하게 바뀐다.

전주시는 오는 7월 중순부터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솔내청소년센터의 기능보강 및 보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2년 6월 개관한 솔내청소년센터는 지하 1층~지상 3층에 연면적 2535.68㎡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개관 이후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제 공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연간 7만 명 이상의 전주시 청소년이 찾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를 통해 지난 2001년 준공 이후 솔내청소년센터에 남아있던 석면을 해체하고, △청소년 문화 활동을 위한 내부 공간구획 △내부 벽면 도색 △노후화된 천장 마감재 교체

△엘리베이터 설치 △육상 방수 등을

이와 관련 시는 친환경적인 청소년 시설 조성과 청소년들의 쾌적한 문화

활동을 위해 전주시 청소년시설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시설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난 2022년 효자청소년센터에 대한 마감재 교체와 석면 철거, LED 전등 교체, 방수공사 등을 완료했으며, 지난해에는 전주청소년센터의 지하 1층 공간을 재구성하고 실내 마감재를 교체하는 등 쾌적하게 정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덕진청소년센터를 비롯한 3개 청소년시설의 기능보강을 완료한 상태로, 앞으로도 전주시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청소년들의 일상 속 문화 활동 지원으로 전주시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주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레드카펫(Red CAR pet)을 도입했다.

전주시 공영주차장, '빨간색'으로 편리하게

시설공단, 공영주차장에 '레드카펫' 도입 근무자 복장·시설 전반에 '빨간색' 적용

"전주에서 주차할 땐 '빨간색'만 따라가세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주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설공단이 '레드카펫(Red CAR pet)'을 도입했다.

레드카펫은 근무자 복장과 요금 정산기, 안내표지 등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시설 전반에 '빨간색' 한 가지 색깔을 적용해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빨간색'만 따라가면 전주시 공영주차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색상은 공단 전 직원과 공단 자문기구인 '시민참여혁신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빨간색'으로 정해졌다. 직원 40.3%, 시민 참여혁신단 55.6%가 빨간색, 파란

색, 노란색 중 '빨간색'을 꼽았다. 공단은 전주시와의 디자인 협의, 완산구청 및 완산경찰서와의 교통 안전 협의 등을 거쳐 레드카펫의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

레드카펫은 전주시청, 공구거리, 전북대 등 노상 공영주차장 3곳에 우선적으로 적용했으며, 향후 전체 공영주차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공단은 유료 30개, 무료 71개 등 총 110개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단순히 주차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차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명품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단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무인복지관 '전주함께라면' 개소... 시내 6개 사회복지관서 운영

전주시, 고독사 예방·고립 위기가구 발굴 위해... 라면 '놓고 가고·먹고 가는' 주민공유공간 마련

전주시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위험 대상자 발굴을 위해 누구나 라면을 기부하거나 먹고 갈 수 있는 주민공유공간이 마련됐다.

전주시는 24일 확산종합복지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대표, 평화2동 자생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인복지관 '전주함께라면'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주함께라면' 사업의 합한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 6

개 무인복지관 조성 관련 기념 영상이 상영됐다.

이와 관련 전주 고향사랑기금 1호 사업인 '전주함께라면'은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급부상한 자발적·장기 은둔형 고립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시와 6개 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주민 누구나 접근가능한 공유공간인 라면카페를 조성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인복지관 '전주함께라면' 사업은 평화사회복지관과 전주종합사회복지관, 확산종합사회복지관, 전북종합사

회복지관, 산너머종합사회복지관,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등 6곳에서 추진되며, 고향사랑기금 2,000만원을 포함한 총 4,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일반시민들도 언제든지 6개 무인복지관을 찾아 라면을 기부하는 것으로 고립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일 시청 로비 책기동도서관에서 '전주함께라면' 시행을 위한 라면모금 나눔캠페인을 전개했다. /김욱기 기자

이날 캠페인에서는 1호 기부자로 나서 라면을 기부한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직원들이 동참해 무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라면을 기부했다.

또한 평화2동 자생단체연합회가 '전주함께라면' 릴레이 기부에 동참해, 연합회 바자회 수익금 100만원을 '전주함께라면' 나눔캠페인 2호 성금으로 전달했다.

이렇게 모인 라면과 성금은 무인복지관 '전주함께라면'을 함께 추진하는 전주시 6개 복지관에 전달됐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민 대상, 무료 법률·노무·세무 상담 서비스 제공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매일 1회·사전 신청 접수

전주시민들에게 법률과 노무, 세무 관련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이 매일 한 차례씩 운영된다.

전주시는 지난 21일 완산구청에서 2024년 첫 번째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했다.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로 구성된 법률상담관 14명이 위촉돼 각종 법률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담실 운영은 전주시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둔 자의 사전 신청을 받아 이뤄지며, 매일 셋째 주 금요일 상담 수요에 따라 전주시청 또는 완산·덕진구청 중 한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첫 상담에는 위촉된 14명의 전

주시 법률상담관 중 시민들의 상담 수요에 맞춰 5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사전에 상담을 신청한 시민 20여명을 대상으로 유익하고 알찬 법률·노무·세무에 관한 상담을 제공했다.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한 한 시민은 "평소 법률 상담에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상담을 통해 법률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인받고 평소 궁금한 법률사항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무료 법률 상담을 원하는 전주 시민이면 누구나 전주시 인권법무과



(063-281-2246)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완산구 서일공원, 힐링 정원으로 탈바꿈

조형물·조명·꽃·나무로 새단장... 시민들 '호응'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는 주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을 위해 서일공원 정원조성사업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서일공원은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으로 사랑받는 곳이지만, 일부 공간은 쓰레기 투기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어 왔던 곳이었다.

이에 구는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도합사업으로 아치조형물과 미니 울타리, 바닥조명을 설치하고, 셀렉스와 목수국을 비롯한 42종류의 관목 및 초화류로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담겨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서일공원으로 산책을 나온다는 주민들은 "새로 설치된 조형물이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고, 꽃들도 예쁘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다"며 "조성된 정원이 계속 깨끗하게 관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여러 소감을 전했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공원 내 정원이 시민들의 삶에 휴식과 자연을 유희하는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겠다"며 "지금도 마을과 생활 주변의 정원을 정비하고 관리하시느라 애쓰시는 전주 초록정원사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김영태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